

나로 우주센터 연내 위성발사 불발 왜

러 첨단기술 유출 꺼려 트집잡기

오일달러 넘쳐 협력사업 소극적
내년 2분기에나 발사 가능 할 듯

올해 말로 예정됐던 고흥 나로우주센터 한국 최초 로켓(소형위성발사체 KSLV-1) 발사가 사실상 내년으로 연기됐다. 러시아가 지난 10일 인도하기로 한 1단 발사체(지상시험용)를 보내지 않아서다.

첨단기술 이전이나 제휴를 억제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지난 6월 러시아의 비닐 관련 첨단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노브시르비스크에 있는 '메카스케미스트리 연구소'를 방문했던 전남도 제조업체와 대학교수, 공무원들은 기술제휴 협상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돌아왔다.

◇언제 발사 가능할까=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31일 'KSLV-1 발사체 시스템 설치 및 성능시험 완료 일정 등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거쳐 8월 중 발사 일정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러시아가 발사대 시스템 설치 완료가 내년 1분기에나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사실상 발사시기는 2분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은 해외도입 부품인 초저온·초고압 밸브 등의 조달이 지연되면서 완공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흥 나로우주센터 현황=나로우주센터(Naro Space Center)는 인공위성 발사장 및 우주 개발에 필요한 연구·실험 활동의 근거지로서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일대 510만8천350㎡(여의도 면적의 0.6배) 부지에 들어서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최 '이명박 정부 지역발전정책 광주·전남 순회 설명회 겸 토론회'가 23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가운데 박경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협력국장이 지역발전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5+2' 협의체·지원단 만든다

박경국 균발위 국장 광주설명회서 밝혀

새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인 '5+2 광역경제권'과 '초광역권 개발사업'이 내년 1월 시범사업 위주로 본격 추진된다. 또 '5+2 광역경제권'사업의 권역별 추진 주체는 각 권역에 편성된 지자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한 인공위성을, 우리가 만든 발사체에 실어, 우리의 땅에서 발사할 수 있게 됐다.

남 순회 설명회' 의견 수렴 및 토론회 간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국장은 '5+2 광역경제권'과 '초광역권 개발사업'과 관련, "선도사업(시범사업)이 오는 9월 대통령 업무 보고를 거쳐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1년 동안 시범 사업기간을 거쳐 2010년부터 본격 추진된다"며 "대상사업은 현재 각 권역별로 구성된 협의체가 검토 중인 사업과 대통령 공약 사업, 지역 현안사업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5+2 광역경제권' 사업 추진 주체와 관련, 박 국장은 "정부 주도로 할 경우 자치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권역별로 구성된 자율협의체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성과를 평가하면서 법적 제도적인 틀을 갖추도록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협의체는 사업을 추진하는 집행기능을 갖게 될 것이다"며 "각 권역별 협의체의 실무를 뒷받침할 상설기구인 지원단 등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고 덧붙였다.

전남 내년 SOC 예산 확보 순조

여수산단 진입로 700억 증액
순천~여수 복선전철화 750억
대불산단 진입로 27억 늘어

정부 각 부처 반영 2009 전남 주요 SOC 사업

Table with 3 columns: 사업명, 2009년 반영액, 2008년 대비. Rows include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순천-여수 복선전철화, 전라선 복선화, 여수-순천 국도 건설, 대불산단 진입도로, 울촌산단 진입도로, 전주-광양 고속도로, 목포-광양 고속도로, 동순천-광양 복선화, 보성-임성리 철도 건설, 진주-광양 복선화, 목포 신항 건설.

이명박 정부의 국고예산 절감 방편에 따라 일정 부분 예산 삭감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던 내년도 전남지역 사회간접시설(SOC) 국고 예산 확보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도 건설 등 일부 SOC 사업은 예산 확보가 부진을 거듭하면서 당초 계획내 완공이 어려울 전망이다.

대비,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반영에 나섰다. 이와 함께 광양항의 물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SOC 사업 예산도 상당 부분 증액됐다. 우선 전주-광양 고속도로 사업 내년도 예산은 1천420억원으로 올해(685억원)보다 735억원이나 늘었으며 목포-광양 고속도로 사업 내년 예산도 올해(981억원) 수준인 960억원이 책정됐다.

그러나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 반영이 미진, 계획 내 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보성-임성리 철도 건설 사업 예산의 경우, 총 예산이 1조2천979억원으로 2011년 완공 계획이지만 올해까지 총 661억원의 재원이 투자되는데 그쳤으며 감사원의 중부 투자 지적에 따라 내년 예산은 관리 비용 7억원이 반영되는데 그쳤다.

"MB정부 지역발전정책 결국 호남 소외"

민주당 주승용 의원 비판



민주당 주승용 의원(여수·전남도당위원장)이 이명박 정부의 '7·27 지역발전정책'은 지역 차별을 심화시키고, 호남을 소외시킬 수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주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균형발전을 하려면 낙후 지역을 우선 지원해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에는 이러한 방안이 없다"며 "이는 수도권과 동등하게 경쟁하려는 것으로 지방축이기에 다를 아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또 "전남과 전북은 호남권이라는 1개의 광역경제권으로 묶고, 영남은 대경권과 동남권이라는 2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영남이 호남에 비해 2배의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다"며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과 영남을 잇는 정부축에 집중된 개발을 전국으로 분산

하자는 것인데, 인구만을 기준으로 호남을 1개 권역으로 묶는 것은 균형발전 역사를 거스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방안과 관련해서도 호남은 무시되고 소외되고 있다"며 "호남고속철도의 일기내 완공약속과 무안공항 경유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광역경제권은 인구가 아닌 지역 낙후도를 기준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dvertisement for Bayer HealthCare Canesten cream. Features a close-up of feet, the Bayer logo, and text in Korean: '좋은아빠되고 싶다면, 무좀부터 고치세요!' and '사랑하는 가족에게 쉽게 옮겨질 수 있는 무좀 곰팡이균 바이엘 카네스텐 크림으로 시원하게 잡으세요!'.